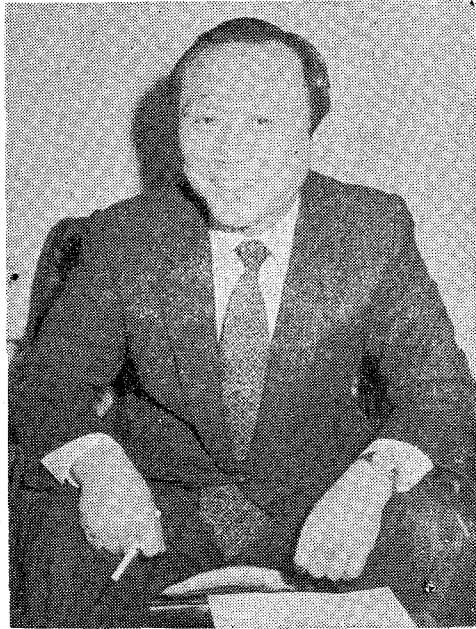


“面마다 3곳씩 『品種展示圃』 설치
 자율적으로 선택하게끔 誘導할 터”



朴正潤 농산국장

이미 200년전에 Thomas Malthus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식량이 공급부족을 일으켜 인류는 결국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그동안 발전해온 과학성능과 더불어 통일계품종의 확대 및 화학비료와 농약의 개발등으로 퇴색해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식량 위기의 어두운 그림자는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세계적인 식량난은 오늘날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식량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국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식량의 자급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길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식량수급 전망은 어떤지요?

物量충분 올해 쌀 需給 蹉跎없어

작년의 추곡작황은 세계적인 이상 기온의 영향으로 냉해를 입은결과 약 1천만석이 감수되어 정부에서는 식량 수급의 안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 정부가 확보한 쌀 도입 총량은 9백 33만섬이며 정부미 재고량 4천 5백 70만섬을 합할 경우 정부가 확보한 쌀의 총량은 1천 3백 90만섬이 되며 이는 정부미의 월간 방출량을 1백 20만석으로 볼 때 싹이 생산될 때까지는 충분히 방출할 수 있는 량입니다.

앞으로 국가안정을 위하여 의미 도입을 계속 추진중이며 4~5백만 석을 내년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므로 식량수급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계 식량사정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식량의 武器化 현실적으로 대두

세계 곡물 작황은 '81 미곡년도

기준으로 사료곡물이 716백만톤, 대두가 82백만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1.5%와 12.8%가 감소되었으나 소맥과 쌀은 생산량이 증가되어 소맥은 440백만톤으로 전년대비 5%, 쌀은 389백만톤으로 4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에 따른 소비의 확대로 기말재고는 줄어드는 경향이 며 쏠런, 중공 등 대량 소비국의 수입 수요증가에 반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여력 감퇴로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美國「레이건」신행정부의 대 쏠런 금수 해제가가능성, 금년도 작황 등에 따라 물량과 가격면에서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식량만이라도 국내에서 자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겠습니다.

지난해는 이상 기온으로 인해 정갈 노력에 비해 결과가 너무나도 없었던 한해였습니다.

자연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농업이기 때문에 기상학의 이변은 불가항력이지만 여기에 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올해 쌀증산을 위해 병충해 및 냉해 등 재해에 강한 벼 품종을 새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미곡증산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요?

**面마다 3곳씩 品種展示圃 설치
자율적으로 品種선택토록 유도**

금년도 식량수급 계획량은 국민식
량의 자급과 안정생산 기반을 공고

히 다져나가기 위하여 총 5천 3백
23만 9천섬으로 정하고 주곡인 쌀
은 총인구 (38,200천명)와 연간소
비량 (1인당 134kg)을 감안하여 3
천 8백만섬으로 책정하였습니다.

'81 식량 증산 계획

	'81 계획		'80 실적		대 비 (%)
	천	톤	천	석	
계	7,532	53,239			
미 곡	5,472	38,000			
맥 류	1,078	7,816	906	6,567	119
(대 과 맥)	976	7,073	811	5,876	120
두 류	321	2,335	279	2,035	115
(대 두)	249	1,842	216	1,602	115
서 류	474	3,700	431	3,356	110
잡 곡	187	1,388	170	1,264	110
(옥 수 수)	169	1,253	154	1,141	110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시책으
로는

첫째 : 각종 재해에 강한 저항성
품종을 적극 개발하고 통일제와 일
반계 품종을 병행 보급해서 지대별
로 적기적품종을 재배토록 기술지도
하되 읍면당 3개소씩 품종전시포를
설치 (총 4,480개소)하여 농민들이
이를 보고 자율적으로 품종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고 대농민 교육과 홍보
에 주력하겠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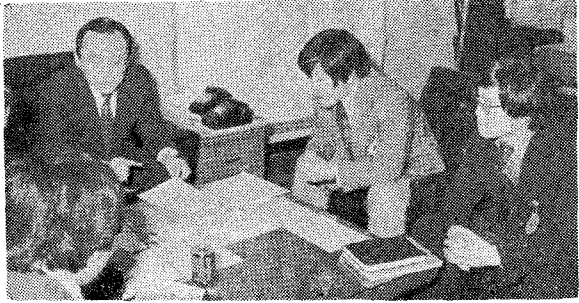
둘째 : 그간 화학비료에만 의존하
므로서 농토가 날로 쇠퇴되어 지력
이 한계점에 도달하였으므로 금년부

터 농토 배양사업 10개년 계획을 수립
하여 퇴비, 객토, 심경, 토양 개량
제 사용 등 지력증진 사업을 대대적
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셋째 : 경종 기술의 혁신으로 과학
영농을 구현하고자 묘판 규산질비료
의 사용을 의무화 하고 전층 시비와
3요소 균형시비의 과감한 실천으로
비료의 효율을 증진하고 지대별, 표
고별 적기 영농 기준의 실천을 강력
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 : 병충해 방제의 철저를 위하
여 종래의 농약중심의 방제에서 품
종, 경종법, 농토 배양, 농약 등 중

합방제 체제의 확립실천과 병충해 전염원의 초기 박멸에 주력하고 정밀예찰에 의한 예방 위주의 동시(기간) 공동방제의 정착을 유도코자 합니다.



끝으로 시책의 일선 침투 강화와 지역특수 영농육성 보급입니다. 식량증산 시책 추진 상황실을 조기에 설치하여 지역별 영농담당 책임자를 편성 운영하며 중앙단위의 중점시책 시달과 지역단위의 세부 실천요령 및 특수 영농시책의 발굴의 상호 연계로 추진력을 배가하고 지역별 「새마을 영농 협의회」의 설치운영으로 지역농업을 육성하며 지역영농 평가제 도입으로 시책추진의 내실화를기함과 동시에 각종 홍보 매체의 이용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부족되는 쌀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밀, 보리 등 다른 작물도 증산을 꾀해야만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전작물의 증산 방안은?

空閑地 生産化 汎국민운동 전개

보리의 생산목표량은 수요량을 감안 설정하되 수매량의 사전예시로 농민들이 최대한 자율증산토록 유도

코자 하며 미곡의 소비절약 및 식생활 개선책의 일환으로 보리혼식의 적극 추진과 보리 가공식품을 계속 개발하고자 합니다.

밀, 콩, 옥수수 등 기타 전작물도 최대한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식량의 자급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되 경지이용도 제고와 유희공간지 활용측면에서 공한지 생산화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여 농촌의 유희 공간지에는 콩, 옥수수, 땅콩, 참깨 등을 최대한 생산하고 도시의 직장, 가정주변 생활 공간에는 옥수수, 채소 등을 생산화 하므로써 전국민이 식량을 증산하고 아끼는 생활과 지혜를 익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화학비료의 계속적인 사용으로 쇠약해진 농토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농토 배양 10개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의 추진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개량 실시로 增産의욕 고취

현재 우리나라 논토양의 66%가 사질논, 고논, 미숙논, 염해논으로 구성되어 보통논에 비하여 56~92%의 저위 생산성을 띠고 있으며 이웃 日本과 비옥도를 비교할 때 작토심, 심경, 유기물, 규산과 양분

보존능력이 46~95%로서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상기온 등 재해의 경우에 흉작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의 냉해에도 불구하고 농토 배양 사업을 벌여 지력을 튼튼하게 한 농가는 다수확의 기쁨을 안겨준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 우리 나라 농토의 현황

* 우리나라 논토양의 66%가 저위 생산지임.

	보통논	저 위 생 산 지				
		계	사질논	고 논	미숙논	염해논
면 적	천헥타 414% (34)	810 (66)	396 (32)	110 (9)	270 (22)	34 (3)
생산력지수(%)	100	90	92	92	56	

* 우리나라 논토양의 비옥도가 극히 낮음.

구 분	현 재			목 표
	한 국	일 본	대비(%)	
作 土 深(cm)	10.0	18.0	55	18.0
酸 度(pH)	5.5	5.8	95	6.5
有 機 物(%)	2.6	5.7	46	3.0
珪 酸(me/100g)	78.0	96.0	81	130.0
養分保存能力(me/100g)	11.0	20.0	55	20.0

따라서 81년을 농토배양 10개년 계획의 첫사업년도로 설정하고 토양의 정밀조사 결과에 의한 종합개량 실시로 증산의욕을 고취코자 전국에 139개소의 농토배양 종합개량 전시포를 설치하고 정밀토양도에 의한

퇴비, 객토, 심경 및 개량제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는땅 노는 일손 없애기 운동의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농토배양의 연중 실시 체제를 확립하여 여름철(5~10월)에는 산물, 들물,

논두렁 풀베기를 하고 겨울철(11—4월)에는 개토, 심경, 벼짚깎기, 누비작물을 재배케 하며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기술지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증산요인중에서 병충해 방제는 가장 빠른 시일내에 최대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병충해에 의한 피해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증산계획을 세우고 증산에 필요한 농정을 떠나가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올해는 농민의 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식량증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종합적인 방제대책을 개선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된 중요사항 몇 가지만 간추려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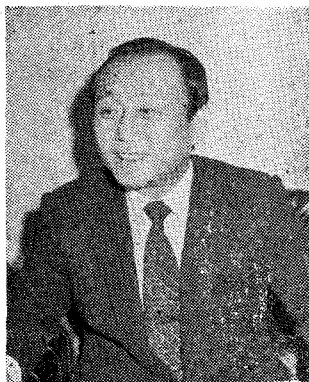
**農民의 農藥선택권 최대한 부여
종합방제체제 확립, 要因 극소화**

첫째, 종합방제의 체제 확립과 실천으로 병충해 발생요인을 극소화하고자 합니다. 종래의 농약위주 방제를 탈피하여 내병충성 품종 개발 및 경종법개선, 농토배양과 약효가 우수한 혼합제 농약의 개발공급 등 종합대책으로 병충해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예방위주의 적기동시(기간) 공동방제를 정착화시켜 병충해 방제 시기가 유사한 주요 병해충을 공동방제하므로, 노동력의 절감은 물론

방제효과를 높이고 지역별, 품종별, 방제력을 작성, 적기방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둘째, 병충해 전염원을 초기 박멸하여 방제효과를 최대한 높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못자리(68천 헥타) 설치전 규산질비료의 사용을 의무화하며 증자소독 및 못자리 공동방제를 철저히 하여 무병건묘를 육성하도록 못자리 임재농약(키타진 제외) 사용을 유도하고 이병묘는 본답이앙을 절대 금지코자 합니다.

또한 도열병, 백엽고 병등 병충해 발생 상습지를 조사하여 카드로 비치하고 상습지에는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품종, 농토배양, 경종지도, 농약의 적기공급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병충해 발생 상습지를 일소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 병충해 전염원을 초기에 박멸하여 방제 효과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차농산국장

세째, 정밀예찰과 방제업무의 개선입니다. 병충해 발생 및 방제보고에 있어 종래의 전수조사를 표준조사로 하여 통계의 정확도를 기하고 정확한 예찰정보 발표를 위한 지역별, 품종별, 모작별 구분 체계를 갖추고 예찰요원의 전문화에 힘쓰는 한편 관주도형 방제를 가능한 탈피하여 적기 농민자율 방제체제로 유도코자 합니다.

또한 방제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존 공동방제단을 새마을 영농회 공동 작업반에 흡수하되 우수 새마을 영농회 중심의 시범 공동방제단을 읍면당 2~3개씩 선정육성하고, 새마을 청소년회 중심의 용역방제단을 군당 1-2개씩 조직하여 병충해 발생상습 지역과 연계하여 중점 공동방제코자 합니다.

끝으로 농약관리 제도의 개선을 들 수 있습니다.

마을단위 새마을 영농회 중심의 기호농약 신청과 방제시기의 기호농약주문 공급제를 도입하여 농민의 농약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고 농민의 사용상 편의를 위하여 농약의 포장지 표시방법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농협계통 농약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도열병약, 멸구약 등 주요 농약을 중점 확보 공급하므로써 공급과 가격의 이원화에 따른 폐단을 극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농약의 무이자 외상공급으로 인

한 농약계정 적자와 농민의 의태심 조장을 방지코자 무이자 외상공급은 지양하되 농민의 구매력 감퇴를 고려하여 영농자금과 연계하며 약 85%는 외상공급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약의 시험 및 검사기관을 분리 독립시켜 시험은 농촌진흥청, 검사는 국립농업자재검사소로 하여 우수농약개발과 약효가 우수한 농약의 선별 보급제도를 강구하는 한편 사후 유통농약의 단속 검사 제도를 강화코자 하며 이를 위하여 작년말에 농약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
 증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간접증산이라 할 수 있는 소비절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 한 사람이 한기에 한순가락씩만 절약해도 연간 295만섬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지금보다 쌀 대신 10%만 보리, 감자, 고구마 등 잡곡으로 혼식을 한다면 연간 370만섬(3,112억원)이라는 엄청난 양의 쌀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절약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식량절약 기풍조성 시급한 課題

세계적으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식량부족 현상과 무기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는 제 1의 생산인 식량증산에 못지않게 제 2의

생산인 식량절약과 식생활개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절약을 위하여 우선 식량절약의 기풍을 조성하고 여성단체를 통한 교육이 강화되어야겠으며 혼식이 생활화 되도록 어릴때부터 학교 교육을 강화하여 이를 체질화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식량의 낭비풍조 없애기 운동으로 가정과 요식업소에서 공기밥을 실천하는 한편 연 2회 이상 쥐잡기를 실시하여 간접 증산에 기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보리 등 잡곡의 혼·분식이 요식업소 및 구내식당에는 보리쌀 20% 이상의 혼식 이행이 철저히 되도록 주력하고 식량 소비절약을 위하여 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끝으로 농산국장님께서 농업에 관
 계하는 모든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
 으신 말씀은.

올해는 기필코 大豊 이룩해야만

지난해에는 냉해피해로 수확량이

크게 감소되는 등 시련의 한해였으며 나아가 지난 3년간 계속된 기상재해로 그간 다져놓은 주곡자급의 기반까지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금년의 식량수급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세계의 식량무기화 경향을 감안할 때 금년에는 기필코 대풍을 이룩해야겠다는 각오로 전 농산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야겠으며 어떠한 재난도 미리 예견하여 대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전국민이 힘을 뭉쳐 제 1의 생산인 식량증산과 제 2의 생산인 소비절약으로 기필코 식량증산의 자급기반을 구축하여야 되겠습니다.

정말 올해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식량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빈틈없는 영농 채비로 풍요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신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
 對談=本誌 崔運鴻 편집역

